

배우 박희순 “입체적인 사이코... 어린 친구들도 섹시하다고”

넷플릭스 ‘마이네임’ 조직 보스 최무진 역할 “나쁜 놈이지만 ‘코리안 사이코’ 궁금증 인 듯”

배우 박희순이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네임’으로 냉철한 조직 보스로 변신했다. 여성이 주인공인 누아르물이지만 그와 대척하는 인물인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소화하며 극에 무게감을 더했다.

박희순은 22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작품의 인기 비결을 묻자 “언더버커들의 기분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정통 누아르물인 인물들의 감정을 깊숙히 녹이는 등 새로움을 가미해 차별화를 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언더버커 소재의 클리셰가 없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새롭게 풀어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아픔과 슬픔을 표출하는 액션이나 언더버커 장르가 없었던 것 같다. 감정을 이렇게 많이 녹여내는 액션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보충했다.

자신이 연기한 최무진 캐릭터에 대

해서도 “악당인 최무진도 단선이 아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공감하신 것 같다”며 “피도 눈물도 없는 ‘아메리칸 사이코’가 아니라 나쁜 놈이지만 번민과 고뇌로 흔들리는 ‘코리안 사이코’였기에 궁금증을 일으킨 게 아닐까 싶다. 흔들리는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공개된 ‘마이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우(한소희 분)가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후 마주하는 냉혹한 진실과 복수를 그린다.

공개 후 6일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1일 기준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라 세계 3위라는 게 실감 나지 않는다. 세계 3위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인지 잘 모르겠다.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고 웃

어 보였다.

이어 “넷플릭스가 세계로 가는 통로를 활짝 열어줬다. 덕분에 후속작들이 주목을 더 받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더욱 주목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희순은 극 중 국내 최대 마약 조직 동천과의 보스 최무진 역을 맡아 복수극의 서사에 몰입감을 더했다. 조직 내에서는 악마 같은 보스의 냉철함을 보이지만, 지우가 조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따뜻한 감정을 그려냈다.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그는 “최무진의 고독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를 생각하며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했다”며 “난 한 번도 날 믿는 사람 배신한 적이 없는 데 난 왜 배신을 당하냐고 말하는 부분이 마음에 가장 외닿으면서 감정이 임이 됐다”고 돌아섰다.

조직 보스로서 신마다 입고 나온 ‘슈트핏’도 화제를 모았다. 특히 단추를 풀어 헤친 셔츠와 포마드 헤어스타일로 섹시함을 더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희순은 “팬들 사이에서는 ‘엄마

나 50대 아저씨 좋아하네’라는 반응도 있던데 정말 어디 끌려갈까 봐 두렵다.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김진민 감독님이 이 작품은 무조건 최무진이 멋있고 섹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상팀 분장팀 모두 나와 해봤던 팀이라 나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았다”며 “슈트를 전부 맞췄고 수염도 전부 최무진만을 위해서 만들어 냈다”고 공을 돌렸다.

호흡을 맞춘 한소희에 대해서는 “연기력은 걱정하지 않았다. ‘부부의 세계’ 작품밖에 안 봤지만 기라성 같은 배우들 속에서 자리 역량을 발휘한 것을 보고 확신했다”며 “액션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액션 스타에서 처음 만난 순간 그 걱정도 사라졌다”고 추어 올렸다.

넷플릭스 플랫폼의 강점도 짚었다. 그는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사라지는 과도기에서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징어 게임만 해도 초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영화였으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 같다. 흥행이 잘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세



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 싶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세계 시청자에게 선보이는 것 자체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것 같다”고 반겼다.

필모그래피에서 ‘마이네임’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한국에서 1000만 영화를 보유하고 못됐다. ‘마이네임’으로 세계 시청자를 만나고 흥행을 이뤄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지리산’ 첫방송 시청률 9.1%...전 채널 동시간대 1위



tvN 주말드라마 ‘지리산’이 전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에 방송된 ‘지리산’ 1회가 유료가입가구기준으로 전국 시청률 9.1%를 기록했다. 수도권 시청률은 9.7%를 찍었다.

이는 역대 tvN 드라마 첫 방송 시청률 3위이자 tvN 토일드라마 첫 방송 기준 2위 기록이다.

김은희 작가의 신작이자 전지현과 주지훈의 드라마 복귀작으로 기대를 모은 ‘지리산’은 수도권, 전국 기준으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가

지 올랐다.

‘지리산’은 지리산 국립공원 최고 레인저 서이강(전지현)과 말 못 할 비밀을 가진 신입 레인저 강현조(주지훈)가 산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고를 파헤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물이다.

이날 방송에서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낙석이 떨어지는 절벽에 뛰어들어 동료를 구해낸 레인저 서이강 앞에 신입 레인저 강현조가 나타났고 2인 1조로 조난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

비바람 치는 산속 조난자를 찾아 나선 둘은 조난자가 죽으려 온 것

김은희 작가 신작

이 아닌 살려고 왔음을 알게 된 후 수색 방향을 바꿔 생존 포인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강현조의 비밀이 베일을 벗었다. 그가 본 환영 속 검은 바위, 상수리 잎, 나뭇가지와 돌로 만든 이상한 표식이 바로 조난자가 있는 장소를 가리켰다.

그곳이 상수리 바위임을 유추해낸 서이강과 정구영(오정세), 박일해(조한철)의 힘이 보태져 생명을 살렸다. 이후 어떻게 장소를 알았냐는 서이강의 물음에 강현조는 환영의 비밀을 털어냈다.

2년 뒤의 해동분소로 시간이 흐른 후 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자유자재로 산을 넘던 서이강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모습은 눈을 의심케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찾아 헤맸던 조난사건을 해결한 서이강은 과거 강현조와 상수리 바위에서 발견한 표식을 서로 연락이 어려울 때 조난자 위치를 알리는 데 사용했고, 최근 조난사건에 그 표식들이 새겨져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강현조가 코마 상태에 빠져 또 한 번 발전이 전개됐다. 이에 서이강이 “누군가 저 산 위에서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라며 “누군가의 정체가 이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한·중·일 걸그룹 ‘케플러’ 탄생...‘걸스플래닛 999’

한·중·일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로 기획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 999: 소녀대전’이 조라한 성적으로 막을 내렸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걸스플래닛 999: 소녀대전’ 마지막 회 시청률은 0.87%(비지상과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탈락과 합격의 경계선인 9위를 발표하는 순간은 분당 최고 시청률 1.69%를 나타냈다.

이날 방송된 파이널 생방송 무대에는 연습생 18명이 올랐다. 이들은 9명씩 2개 팀으로 나뉘어 ‘컴플리션’ 미션 신곡인 ‘샤인’(Shine)으로 대결을 펼쳤다. 데뷔조 멤버는 일주일간 진행된 1차 투표와 생방송 중 집계된 2차 투

한국인 6명·중국인 1명·일본인 2명으로 구성

표 결과를 합산해 선발했다.

데뷔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연습생은 김채현(1위), 휴닝바히에(2위), 최유진(3위), 김다연(4위), 서영은(5위), 강예서(6위), 예자키 히카루(7위), 사카모토 마시로(8위), 선샤오팅(9위) 등 9명이다. 데뷔조 이름은 케플러다. 한국인 6명, 중국인 1명, 일본인 2명으로 구성됐다.

씨엘씨 출신 최유진과 비스터즈 출신 강예서는 케플러로 재데뷔하는 기쁨을 안게 됐다. 휴닝바히에는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휴닝카이의 동생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특수부대 출신 가수에 성추행”...박군 측 “사실 아냐”

“법적 대응할 것”

지난 22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수부대 출신 가수 P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제목자 A씨는 자신이 P의 소속사 선배였다고 밝히며 P가 엉덩이, 가슴 등 신체를 허락없이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힘없는 여자가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의 남자의 성추행을 밀쳐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P는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마치 제가 허락이라도 한 것마냥 성희롱과 성추행의 수위를 전략적으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P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A씨는 “자기의 인기를 과시하고 연예계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자신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 계속해서 지

금 소속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기관리 잘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자신과 사귀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죽을 만큼 싫으면서도 ‘혹시 진짜 사귀면 나한테도 좋은 게 아닐까’ 고민한 적도 있다. P가 제게 했던 말들이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적었다.

A씨는 “가수 P는 불우했던 과거를 모두 이겨내고, 성실한 청년으로서 주목을 받았고 초창기 나왔던 관찰 예능 외에도 정말 많은 TV프로그램의 섭외, CF 출연 그야말로 꽃길을 걸었다”며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군은 15년간 특전사로 복무한 이력으로 주목받았으며 데뷔곡 ‘한잔해’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 ‘트롯신이 떴다’, ‘미운 우리새끼’, ‘강철부대’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수현·차승원, 쿠팡플레이 시리즈 ‘어느 날’ 공개

다음달 27일 첫 방송

배우 김수현, 차승원 주연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어느 날’이 다음달 27일 첫 공개된다.

‘어느 날’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 된 대학생과 진실을 묻지 않는 밀바다 삼류 변호사의 치열한 생존을 그린 8부작 범죄 드라마다.

22일 공개된 1차 예고편에는 김수현과 차승원이 무죄를 주장하는 살인 용의자 ‘김현수’와 진실을 묻어둔 삼류 변호사 ‘신중환’으로 변신한 모습이 담겼다.

불안하게 손을 만지작거리는 김현수(김수현) 위로 “현수야 지금부터 그날 밤 일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절대”라는 신중환(차승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김현수는 갈 곳 잃은 시선으로 극한의 두려움을 표현했다.

이어 아둠에 갇힌 집 안을 드러낸 카메라가 빨려 들어갈 듯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날 밤의 흔적들을 비춘다. 칼과 피땀, 계단 손잡이에 묻은 핏자국, 깨진 꽃병을 지나 김현수가 “근데 제 진짜 얘기가 뭔지는 아셔야죠”라는 말을 꺼냈고, 그 후 피를 묻힌 채 떨어지고 있는 한 사람의 손과 바닥에 떨어진 스탠드가 비춰져 위기감을 증폭

시켰다.

신중환은 “너 그 진짜 있잖아. 응? 그 진짜에 집착하다 아무것도 못 해”라며 단호하게 얘기한 후 흔들리는 화면 속 술을 마시는 여자 뒤로 경찰 감시반의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된다.

선들을 신은 신중환이 떨어진 국화꽃을 줍자 시간을 되돌린 듯 라임을 자르는 여자의 손과 몽롱한 표정의 김현수, 도망치듯 집을 나서는 김현수와 뭔가를 숨기는 수상한 행동이 연속적으로 포착됐다.

그리고 경찰사에서 울부짖으며 포효하는 김현수의 모습이 미스터리로 배가시켰다.

그런가 하면 영상은 죄수복을 입은 김현수의 조사 현장으로 전환되며

또 한 번 강렬한 임팩트를 드리웠다. 초조하게 눈동자를 굴리던 김현수가 “여자는 죽었나요?”라는 말과 함께 정면을 응시하면서 ‘어느 날’에 대한 궁금증을 들끓게 했다.

제작진은 “어느 날’은 장르 불문 연출력을 자랑하는 이명우 감독이 색다르게 그려낼 ‘하드코어 범죄 드라마’ 판에서 국보급 배우 김수현, 차승원이 정점의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귀중한 드라마”라며 “공개되는 날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